

세심한 조율 거친 문학개론서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임규찬
문학평론가

대형서점의 문학이론서 코너를 가본 사람이면 우리에게도 문학개론류의 책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거의 수십종에 달하는 책들이 ‘문학개론’ ‘문학개설’ ‘문학이론’ ‘문학입문’ ‘문학이란 무엇인가’란 이름을 달고 서가에 뽐뽐히 꽂혀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개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생김새로, 마치 베끼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엇비슷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른바 시험용에 가까운 중고교 참고서를 확장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다. 문학개론류의 출간이 이른바 대학교재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강의의 설명식 필요와 교과서적 모범답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제한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관성과 열린 체계의 속성이 본질이기도 한 문학을 고정되고 사물적인 기계해부도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글썩음의 새로운 시도

물론 그런 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

이 책은 시대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책이 20년 동안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문학에 관한 질문서로서 온전한 총만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나온 저작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인지 글간의 보이지 않는 단층을 보게 된다. 어쨌든 그 나름의 세심한 조율을 거친 이 책의 느낌은 상큼하다.

나름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집필한 개성 있는 책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학자의 저서를 번역한 경우이다. 또다른 예는 문학의 본질이나 내적 논리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서 펴낸 책들이다.

결국 수록된 글 성격에 따라 전체적인 책의 성격이 규정될 수밖에 없지만(따라서 편

자의 입장이 자연 반영되게 마련이지만), 기계적인 해부도와는 다른 문학에 관한 여러 면모들을 다채롭게 살필 수 있고, 또 그만큼 풍부한 사고를 유도할 수 있어서 개인 집필보다 더 효과적인 때가 있다.

최근에 간행된 김인환·성민엽·정과리 3인이 엮어낸 《문학의 새로운 이해-문학의 문턱을 넘어서》(문학과지성사)도 그렇다. 특히 같은 출판사에서 1976년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동일한 목적하의 문학입문서를 출간한 바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서문에서 편자들은 그 책을 계승하여 그 후 20년간에 제출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훑아볼 기회로 이 책 편집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출판사에서 같은 제명의 책을 편자를 달리하여 다시 출간한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편자들이 전혀 다른 성향이라면 혹여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학과지성사는 단순히 출판사 차원이 아닌 창작과비평사와 함께 우리 문학의 중추신경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새로운 글썩음을 시도했을까.

보기 드물게 멋들어진 미문의 〈문 여는 소리, 혹은 첫 낚스물〉라는 서문을 보면 거기에 중대한 문제의식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김현·김주연편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70년대라는 하나의 시대적 의지의 산물이란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의 주체성과 내적 구체성을 다지던 시대의 문학인들에게, 문학을 자족

적이고 자율적인 하나의 단단한 독립체로 이해하려는 문학의 자율성 문제는 꼭 딛고 가야 할 짐걸들이었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곧바로 정의를 향해서 ‘무엇인가’였다는 것이다. 반면 《문학의 새로운 이해》는 이제 더이상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학이 자족체가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나아가 ‘그것의 생산과 유통과 수용의 끝없는 원환 체계 속을 유통하는 예측불가능한 기류’ ‘물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자장(磁場)’이라는 판단 아래 문학의 정의를 묻는 대신에 그것의 존재론적 국면을 묻는다고 했다.

제1부 〈문학의 존재론〉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르디외의 방법론에 근거한 현태수의 글과 에코의 글, 보르헤스의 소설론의 본질을 탐색한 장경렬의 글이 ‘새로움’의 구체적 표지가 될 것이다.

시대에 충실하려는 노력

다음으로 이들은 문학과 사회, 내용과 형식,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등 그동안의 이항대립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좀더 복잡한 상관 문제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서로 넘나들고 합류하지만 문학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크게 나눈다. 그리고 문학의 안쪽에 언어·육망·장르·문학사 문제를 놓고, 바깥쪽에 사회·이데올로기·과학·문명·권력 문제 등을 놓는다.

《문학이란 무엇인가》가 문학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그러한 문학의 본질문제로부터 작가의 문제, 내용과 형식문제 등 작품분석 차원에 집중했다면 보다 넓어지고 복잡한 지평에서 문학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음을 2,3부의 글들에서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처럼 마지막으로 한국문학을 다룬 글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전자가 70년대 문학계의 주요 양상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후자는 확실히 80, 90년대에 걸친 문학계의 몇몇 주요 양상을 다룬 글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들만 비교하면 의당 시대에 따라 이런 류의 책이 되풀이 편집되어 제출될 수 있고, 또 제출되어야 할 당위성도 느껴진다.

실제로 이 책은 시대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문학의 위기론이 심심찮게 나

출판 자료

저작권의 내용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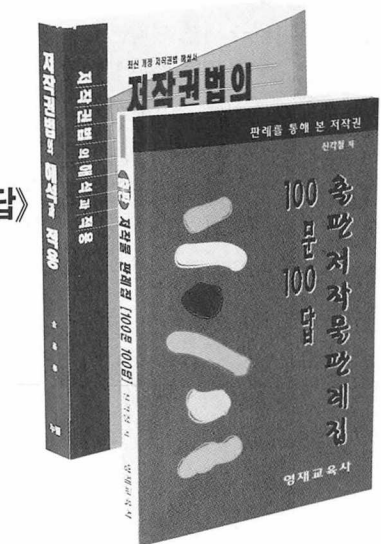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출판저작물 판례집 100문 100답》

개정저작권법을 해설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김기태 지음, 누림), 판례를 통해 출판물 저작권의 이해를 돕는 《출판저작물 판례집 100문 100답》(신각철 지음, 영재교육사) 등의 책은 저작권의 실재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 유용하다.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최신 개정 부분까지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출판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저작물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저작자의 권리와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출판저작물 판례집 100문 100답》은



‘출판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는’ ‘출판계 관행상 통용되고 있는 3년간 출판유보는 관습법으로 정립된 것인가’ 등 법률지식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림/A5신/448면/12,000원

영재교육사/A5신/366면/12,000원

인간적인 마키아벨리의 발견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를 읽고

강준식 · 소설가

도는 현 상황에서 문학의 존재근거에 대한 세심한 더듬이 역할만으로도 충실한 입문서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이 20년 동안의 대답들로 이루어진 문학에 관한 질문서로서 온전한 자기충만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심이다.

편자들은 질문서란 본래 존재결여로서 존재한다며 이 책이 모든 것을 담지 않았다고, 스스로 '너무나 성기게 짜인 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입문서의 운명이자 동시에 입문서의 특권이라고 했다. 아마도 문학을 향한 모든 화살을 담아낼 과녁일 수는 없다는 전제라면 타당하다. 그것은 곧 '문학과지성사'라는 한 출판사보다 편자들을 포함한 '문학과 사회'라는 문학잡지와 그와 연관된 유파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상큼한 문학의 관점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글간의 보이지 않는 단층을 보게 된다. 지나치게 앞서 나온 저작을 의식해서인지, 그에 따라 시대적 추이까지 담아내려는 의욕 탓인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자력이 손쉽게 잡히지 않는다. 또한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필자 구성이 서양이론가와 한국비평가로 반분한 것을 두고 편자들이 서구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적 특수성의 토양에 꺾꽂이하려는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문학의 새로운 이해》 역시 유사한 형태라 마음 한 구석이 찔끔하다. 그리고 이 점과 연관되면서 글간의 난해도의 차이까지 있어 입문서로서 흠집을 낸다.

어쨌든 문학은 중심의 텅 빈에 의해서 울림을 증폭시키는 검은 구멍이라고 편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 구멍 속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쉽없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문서라 부르는 책은 이 구멍의 둘레에 촘촘히 맺히는 이슬들이라고 했다. 의미심장한 듯하면서도 적잖이 막연한 이 표현대로 《문학의 새로운 이해》 역시 검은 구멍 둘레에 맺히는 이슬처럼 자못 영롱하다. 아직도 진정한 방식의 입문서가 부재한 탓에 그 나름의 세심한 조율을 거친 이 책의 첫 느낌은 아침이슬처럼-햇살에 어찌될지 모르지만-일단 상큼하다. ❖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를 어떤 사람은 작가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라 평한다. 역사를 깊이 연구한 작가도 있고, 문학적 재능을 지닌 역사가도 있으니까, 어떤 분류가 더 적절한지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금 시오노가 문제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그녀의 학설 때문인가? 아니면 역사를 재미있게 다룬 그녀의 글 때문인가? 답은 후자에 있는 것 같다. 역사가와 작가의 글을 가르는 분기점은 독자에 대한 기본 태도에 있다. 작가라면 어떤 방식이든 독자의 긴장을 환기하는데 글의 주안점을 두게 마련인데, 그것은 긴장이 예술의 본질이기도 한 까닭이다. 시오노의 글에도 이런 긴장을 위한 문학적 장치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시오노가 작가적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뚜렷한 반증이기도 하다.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도 그녀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읽는 재미를 추구하는 계열의 작품이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웬만한 역사소설가에게는 시오노처럼 역사 기술 쪽으로 극단까지 밀고 나갈 만한 용기가 없다. 작품 속에 들어가 해설을 즐기던 문법으로 되돌아오곤 했었다. 이야깃거리나 역사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의 긴장과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시오노는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가 처한 시대상황과

인간관계를 여러 앵글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는 더이상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환기하는

가혹한 인간이 아니다.

시오노의 친구였던

마키아벨리는 어느새 '나의 친구'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환기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이점 극단까지 밀어제긴 시오노의 대담성을 나는 이채롭게 생각하고 또 높이 평가한다.

특이한 점은 책의 제목이며, 마키아벨리에 대한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이다. 어떻게 여류 작가가 일견 음험하고도 비열한 것으로 알려진 마키아벨리를 자기의 친구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일까?

《군주론》 및 《정략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그 생김새를 보아도 선뜻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시오노가 심취한 것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사자같은 야수성과 여우같은 노회성을 가져야 한다고 갈파한 마키아벨리의 리얼리스트틱한 정치사상, 또는 그의 간결하고도 박력있는 문체를 통해 피력된 냉엄한 역사인식 때문이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접하는 우리 독자들로서도 작가가 마키아벨리즘에 대해 무언가 해

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빗나가고 만다. 시오노는 마키아벨리의 정치 이론이나 전략전술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메스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시오노는 《마키아벨리 어록》이라는 별도의 책을 따로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시오노가 이 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처한 시대상황과 인간관계를 여러 앵글로 보여주자는 것이며, 동시에 마키아벨리에 대한 우리들의 기존 통념을 깨뜨려주자는 데 있는 것 같다. 시오노가 들려주는 피렌체공화국 중심의 르네상스 역사는 확실히 독자에게 지적인 만족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마키아벨리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환기하는 가혹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나 권모술수의 대가라는 통념과 거리가 먼, 사실은 소심하고 경망스러우며 때로는 자기 앞도 잘 가리지 못하는 우리들 속물에 더 가까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책을 덮을 때쯤 시오노의 친구였던 마키아벨리가 어느새 '나의 친구'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다. ❖

시오노 나나미 지음/오정환 옮김

한길사/A5신/474면/10,000원

